

# 우리나라 貧困의 決定要因

—就業狀態와 家口員構成面에서의 分析—

徐 相 穆

## 目 次

- I. 序 論
- II. 特別雇傭統計調査
- III. 貧困模型
- IV. 貧困家口의 特性
- V. 要約 및 結論

## I. 序 論

經濟的 의미에서의 貧困線은 생활의 基本需  
要의 充足을 위한 財貨와 用役의 구입에 필요  
한 所得으로 定義할 수 있다. 家口의 所得이  
이와 같이 定義된 貧困線 下面에 속하는 人口  
가 1976년에 全人口의 약 15%로 推計되었다<sup>1)</sup>.  
國民의 基本需要의 充足이 現代國家의 主要義  
務라고 생각할 때 貧困打開政策 樹立의 필요  
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本稿에서는  
貧困의 決定要因을 糾明하여 함으로써 貧困打

開政策 樹立의 基礎資料를 만들어 보고자 한  
다.

한 家口의 所得을 결정하는 要因이 多様함  
과 같이 貧困은 여러가지 社會·經濟的 要因의  
相互作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本  
稿에서는 家口所得의 大宗을 이루는 것이 勤  
勞所得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家口員(특히 家  
口主)의 勤勞能力과 經濟全體의 就業機會面에  
서 貧困의 決定要因을 찾아보기로 한다. 分析  
方法에 있어서도 貧困模型을 開發하여 回歸分  
析을 시도함으로써 貧困의 決定要因을 定量化  
하는 방법과 貧困家口의 特性을 세밀히 살펴  
봄으로써 直觀的으로 貧困의 決定要因을 糾明  
하는 兩者方法을 折衷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本稿에서의 貧困은 絕對貧困을 의미한다.

## II. 特別雇傭統計調査

貧困의 決定要因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家口

筆者：韓國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1) 徐相穆(1979) 參照.

員 構成 및 經濟活動狀態는 물론 家口所得 및 財產狀態等이 동시에 集計된 統計調查가 필요하다. 分析의 客觀性을 높이고 貧困의 決定要因을 좀더 具體的으로 糾明하기 위해서는 全國을 대상으로 調查標本이 設定되어야 하고 標本數도 상당히 많아야 할 것이다.

特別雇傭統計調查는 1974年 당시 雇傭實態를 파악하고자 全國적으로 약 13萬家口를 대상으로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에서 실시하였다. 直接面接 調查方法으로 家口構成, 經濟活動狀態, 家口所得에 관한 사항을 調查하였다. 이 調查의 특징으로는 調查單位가 家口이었기 때문에 所得分配 分析에 적합하고, 標準家口數가 많기 때문에 雇傭狀態 및 所得分布의 地域別分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調查의 主目的이 雇傭狀態의 파악에 있었고 또한 標本家口數도 매우 많았기 때문에 家口所得에 관한 결과는 대체로 信賴度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所得分配 分析資料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sup>2)</sup>. 本章에서는 이 調查의 家口所得 結果를 貧困分析에 사용이 가능한가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 調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指摘되는 것은 平均家口所得<sup>3)</sup>이 韓國銀行의 國民所得資料는 물론 既存家計調查에 나타난 家口當 平均所得보다 월등히 낮다는 점이다<sup>4)</sup>. 그 이유로

는 우선 農家의 경우 面接調查에 의해 農業收入의 파악이 극히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非農家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보수를 받는 俸給者 이외의 家口는 面接調查로 家口收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本稿에서 家口의 貧困與否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所得의 絕對水準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假定을 세움으로써 特別雇傭統計調查의 家口所得을 調整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1)農家經濟調查에 의한 農家所得은 매일 家計簿 記帳에 의해 推計된 것으로 信賴度가 높다고 생각되어 特別雇傭統計調查의 農家所得을 調整值 1.46(農家經濟調查의 農家平均所得과 特別雇傭統計調查의 農家平均所得의 差額)을 곱하여 사용한다. (2)都市家計調查의 家口當 平均所得은 自營業主家口가 全面 누락되어 全都市家口의 平均所得보다 낮게 나왔으리라 생각된다<sup>5)</sup>. 이외에도 特別雇傭統計調查의 市郡 平均家口所得은 都市家計調查의 平均家口所得보다 낮게 推計되었다. 이를 綜合하여 本稿에서는 特別雇傭統計調查의 農業所得 이외의 모든 所得을 30% 上向調整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所得을 農業所得과 非農業所得으로 나누어 一律적으로 上向調整하므로 特別雇傭統計調查에 의한 家口所得의 低評價 程度는 所得階層에 관계없이 모두 同一하다고 간주하였다. 이리하여 얻어진 結果의 내용이 일반적 期待値와 符合한다는 점에서 위의 假定을 正當化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特別雇傭統計調查의 調整된 所得에 의하면 本稿에서 사용된<sup>6)</sup> 1974年 貧困線(1人 1月 都市 6,300원, 農村 5,300원) 미만에 속하는 家口는 全體의 19%로 1970年의 貧困率 23%와 1976年의 貧困率 15%와 대체로 相值함을 알 수 있다. 또

2) Renaud(1977)는 이 調查結果를 地域別 所得分布 分析에 사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全般的으로 所得이 低評價되었으나 地域間의 所得隔差는 예상치와 별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3) 家口所得은 面接調查(1974. 11. 17~11. 26間 실시)에 의해 얻어졌는데 農業所得은 1年間(1973. 11. 1~74. 10. 31)의 所得이고 農業以外所得은 1個月間(1974. 10. 1~10. 31)의 所得이다.

4) 特別雇傭統計調查에 나타난 都市地域의 家口當 平均所得은 都市家計調查보다 16% 낮으며 農家所得은 農家經濟調查보다 46% 낮다.

5) 朱鶴中(1979) 參照.

6) 徐相穆(1979) 參照.

한 이리하여 얻어진 貧困家口의 特性<sup>7)</sup> 면에서도 일반적 期待值의 符合한다. 따라서 特別雇傭統計調査의 家口所得에 관한 결과는 全般的 所得水準은 低評價되었어도 家口間 所得順位는 대체로 바르게 나왔다고 생각된다.

### Ⅲ. 貧困模型

本章에서는 回歸分析(regression analysis)방법에 의하여 貧困의 決定要因을 糾明하고 糾明된 諸要因이 貧困에 미치는 영향을 定量化하여 보고자 한다<sup>8)</sup>.

#### 1. 平均所得과 所得不均等度

貧困의 가장 중요한 決定要因으로는 平均所得水準과 家口間所得의 不均等도를 들 수 있다. 所得分布가 같다고 간주하면 特定社會의 平均所得이 높아질수록 絕對貧困率은 減少할 것이다. 또한 平均所得이 같다고 간주하면 家口間 所得이 不均等해질수록 相對貧困率은 물론 絕對貧困率도 增加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平均所得과 所得의 不均等도는 地域間 貧困率의 차이나 貧困率의 時系列變化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變數가 된다고 하겠다. 특히 平均所得水準과 所得의 不均等度間에는 긴밀한 相關關係가 없기 때문에 貧困模型의 獨立變數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本稿에서 貧困의 정도를 나타내는 從屬變數로는 貧困率(貧困人口/總人口)을 사용하기로 한다<sup>9)</sup>. 獨立變數도 平均所得은 1人當 平均家口所得을 사용하고, 所得不均等도를 나타내는 變數로는 가장 普遍的으로 사용되는 所得의 「지니」 集中係數(Gini concentration coefficient)를 推定하여 다음과 같은 貧困方程式을 유도하였다.

$$P = a_1 + a_2 \bar{Y} + a_3 G + u \dots \dots \dots (1)$$

- P : 貧困率
- $\bar{Y}$  : 1人當 平均家口所得
- G : 所得의 「지니」係數
- u : 攪亂項

式(1)에서 平均所得( $\bar{Y}$ )과 貧困率(P)은 서로 逆比例하기 때문에  $a_2$ 는 負數로 推定될 것이며 「지니」係數(G)와 貧困率은 正比例하기 때문에  $a_3$ 는 正數로 推定되어야 할 것이다.

分析에는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의 「크로스 섹션」(cross-section)資料를 사용하였다. 市部는 35個市로, 郡部는 9個道로 區分하여 全國을 모두 45個 行政區域으로 나누어 分析하였다.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는 標本家口가 약 13萬으로 많기 때문에 行政區域을 單位로 하여 「크로스 섹션」分析을 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所得分配과 貧困率에 관한 時系列資料의 缺如로 時系列資料에 의한 式(1)의 推定은 가능하지 못하다.

分析의 基本單位로 사용된 行政區域은 人口數 면에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加重最小自乘法(weighted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式(1)을 推定하였다. 加重值로는 各行政區域의 總人口를 사용하였고 推定結果는 다음과 같다.

7) 本稿 IV章 參照.

8) 이와 같이 回歸分析方法에 의해 貧困의 決定要因을 分析한 事例로는 Thurow(1967)을 들 수 있다.

9) 本稿에 사용된 貧困線 設定에 관한 具體的 사항은 徐相璠(1979) 參照.

$$P=17.195^{**}-0.709^{**}Y+114.037^{**}G^{10}$$

(5.558) (0.036) (13.232)

$$R^2=0.97\cdots\cdots\cdots(1a)$$

\*\*1%水準에서 有意

平均所得과 家口間 所得不均等度の 차이만으로 各行政區域間의 貧困率의 차이를 거의 다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R^2$ 는 0.97로 매우 높다. 推定된  $a_2$ 나  $a_3$ 의 符號가 바르게 나왔음은 물론 1%水準에서 모두 有意하다. (1a)의 결과에 의하면 1人當 平均家口所得(1974年 價格)이 1,000원 增加함에 따른 貧困率의 減少는 0.7%가 되며 「지니」係數가 0.1 增加하는 데 따른 貧困率의 增加는 11.4%로 나타났다.

위의 「크로스 섉션」分析結果를 이용하여 貧困率의 時系列變化를 설명해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絶對貧困率은 1965년에 41%에서 1976년에는 15%로 減少하였다<sup>11)</sup>. (1a)의 推定結果를 이용하면 1965~76年間 全般的 所得增大에 의한 貧困率의 減少는 25%이고 階層間 所得不均等度の 增加에 따른 貧困率의 增加는 4%로 推定되었다. 따라서 (1a)의 推定結果에 의한 貧困率의 總減少는 21%로 이 기간중 實際減少量의 약 80%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서 1965~76年間 所得隔差의 深化에도 불

구하고 貧困率의 大幅的 減少는 이 기간중 家口所得의 全般的 向上에 起因한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 2. 勞動生産성과 家口構成形態

위에서 獨立變數로 사용된 平均所得과 「지니」係數 역시 여러가지 複合的 要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貧困의 決定要因이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貧困函數의 說明變數로 좀더 구체적 要因을 糾明해 보고자 한다.

앞의 分析結果에 의하면 貧困의 가장 중요한 決定要因으로 平均家口所得이 糾明되었다. 勤勞所得은 總家口所得의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한다. 특히 低所得家口의 경우 勤勞所得의 重要度는 거의 絶對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本稿에서는 貧困의 決定要因으로 勤勞所得과 직접 관계가 있는 變數를 選定하였다. 勤勞量을 나타내는 變數로 平均勤勞時間을 선정하고 勞動生産性を 나타내는 變數로 平均教育年數와 從事하는 産業의 資本集約度를 選定하였다. 이외에도 貧困의 決定要因으로 家口構成上의 特性을 들 수 있다. 특히 家口員數가 많든지 家口員의 勞動能力喪失로 就業者가 없음은 貧困의 非經濟的 決定要因이 될 것이다. 이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은 方程式을 유도하였다.

$$P=b_1+b_2NEH+b_3HS+b_4AWT$$

$$+b_5AEY+b_6CLR+b_7D+u\cdots\cdots(2)$$

$P$ : 貧困率

$NEH$ : 無就業 家口率

$HS$ : 平均家口員數

〈表 1〉 貧困率減少의 原因 I : 1965~76

	(단위: %)	
	貧困率의 減 少	推定值 / 實際值
平均所得( $\bar{Y}$ )의 增大	-25.2	96.6
所得分布의 惡化	4.2	-16.1
推定된 貧困率의 總減少	-21.0	80.5
貧困率의 實際減少量	-26.1	100.0

10) ( ) 안의 숫자는 평균오차임.

11) 徐相穆(1979) 參照.

AWT: 平均勤勞時間(經濟活動人口)  
 AEY: 平均教育年數(14세 이상 인구)  
 CLR: 産業構造의 資本集約度를 나타내는 變數  
 D: 都市와 農村을 區分하는 「더미」(dummy) 變數  
 1=都市  
 0=農村  
 u: 攪亂項

NEH는 全家口中 無就業 家口比率로서 無就業家口가 많을수록 貧困率은 높아질 것이므로  $b_2$ 는 陽의 符號가 되겠고 家口員의 數와 貧困率은 正의 相關關係가 있기 때문에  $b_3$ 의 符號 역시 陽이 되겠다. AWT는 全經濟活動人口의 平均勤勞時間으로 失業者의 勤勞時間은 0로 간주하였다. AEY는 就業者의 平均教育年數이다.  $b_4$ 와  $b_5$ 의 符號는 陰이 되어야 한다. CLR은 産業構造의 資本集約度를 나타내는 係數로 다음과 같이 誘導되었다.

$$CLR = \sum_{i=1}^{36} W_i CLR_i$$

$W_i$ :  $i$ 産業에 從事하는 勤勞者比率  
 $CLR_i$ :  $i$ 産業의 資本—勞動比率(capital-labor ratio)을 全産業의 資本—勞動比率로 나눈 比率

全産業을 36部門으로 나누고 各部門別 資本係

數(capital coefficient)는 1968年 國富調査結果이고 部門別 勞動係數(labor coefficient)는 1970年 産業聯關表에 의한 結果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b_6$ 의 符號는 陰이 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貧困線의 水準이 都市와 農村地域을 달리 區分하여 策定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都市와 農村을 區分하는 「더미」變數  $D$ 를 追加하였다. 式(2)의 推定에는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의 「크로스 섹션」資料를 사용하였다. 式(2)의 推定結果는 다음과 같다.

$$P = 61.047^{**} + 0.388NEH + 6.461^{*}HS \\
(23.191) (0.525) (3.470) \\
- 0.901^{**}AWT - 4.773^{**}AEY \\
(0.306) (1.138) \\
- 14.080^{**}CLR + 22.826^{**}D \dots (2a) \\
(9.549) (5.377) \\
(R^2 = 0.89)$$

\*\* 1% 水準에서 有意  
 \* 5% 水準에서 有意

(1a)의 結果와 比較하여 볼 때 說明變數는 둘에서 여섯으로 增加하였으나  $R^2$ 는 0.97에서 0.89로 오히려 減少하였다.  $b_4$ ,  $b_5$ ,  $b_6$ ,  $b_7$ 은 1% 水準에서 有意하고  $b_3$ 는 5% 水準에서 有意하다<sup>12)</sup>. 대체로 家口員構成을 나타내는 變數의 有意度가 낮게 나왔다.

(2a)에 의하면 無就業 家口率이 1% 減少하는 데 따른 貧困率의 減少는 0.4%, 平均家口員數가 1人 減少하는 데 따른 貧困率의 減少는 6.5%, 適當平均勤勞時間이 1시간 增加하는 데 따른 貧困率의 減少는 0.9%이다. 또한 14歲 以上 人口의 平均教育年數가 1年 增加하는 데 따른 貧困率의 減少는 4.8%, 産業構造의 資本集約度 指數가 0.1 增加하는 데 따른 貧困率의 減少는 1.4%이고, 都市人口比率이 10% 增加하는 데 따른 貧困率의 減少는 2.3%로 나타났다.

12)  $b_2$ 가 有意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NEH를 除外하고 式(2)를 推定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P = 54.909 + 7.241HS - 1.035AWT - 3.858AEY - \\
(20.267) (3.172) (0.281) (1.092) \\
13.755CLR + 25.478D \\
(8.932) (4.694)$$

AWT를 推定하는 데 있어 失業者의 平均勤勞時間을 0으로 간주함으로써 失業者가 감안되었기 때문에 式(2)에서 NEH가 除外되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다.

위의 (2a)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유의해야 될 점은 獨立變數間的 相關關係 때문에 惹起되는 多重共線性(multicollinearity) 問題이다. 이러한 경우 相關도가 높은 變數의 推定係數의 信賴도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獨立變數間的 相關關係를 좀더 자세히 分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本稿에서는 主成分分析(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시도하여 보았다. 主成分分析은 獨立變數의 線型複合體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變數가 既存獨立變數의 變化를 얼마 만큼 설명할 수 있나를 定量化하는 것이다. 유의할 점은 새로 이루어진 變數(이를 主成分이라고 함)間에는 相關關係가 存在하지 않는다.

〈表 2〉 主成分 分析結果

(단위 : %)

主成分	主成分이 獨立變數의 分散(variance)을 說明하는 程度
第 1	65.88
第 2	13.83
第 3	9.50
第 4	6.60
第 5	2.79
第 6	1.41

〈表 2〉에 의하면 主成分(principal component)이 獨立變數의 分散(variance)을 설명하는 정도는 第 1 主成分이 66%로 가장 높고 第 2 主成分이 14%, 第 3 主成分이 10%, 第 4 主成分이 7%, 第 5 主成分이 3%, 第 6 主成分이 1%로 나타났다. 獨立變數의 分散을 설명하는 정도의 減少率이 第 1 主成分과 第 2 主成分間에 급격하나 그 다음부터는 대체로 漸次的인 注目할 만하다.

다음은 위에서 指摘된 主成分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分析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

해 〈表 3〉에 主成分(第 1에서 第 4까지)과 獨立變數間的 相關關係가 나타나 있다. 式(2)의 獨立變數와 第 1 主成分과는 대체로 높은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도 특히 相關도가 높은 變數로는 平均教育年數(AEY), 産業構造의 資本集約度(CLR)와 都市化 程度를 나타내는 「더미」變數를 들 수 있다. 이들 變數는 대체로 經濟構造의 變化를 나타내며 특히 勞動生産性의 決定要因이라 할 수 있다. 여러 獨立變數가 第 1 主成分과 相關關係가 높다는 것은 式(2)의 變數間에 多重共線性問題가 있음을 의미한다. 第 2 主成分과 가장 相關도가 높은 變數는 經濟活動人口의 平均勞動時間(AWT)이며, 第 3 主成分과 가장 相關도가 높은 變數는 家口員數(HS)이며, 第 4 主成分과 가장 相關도가 높은 變數는 無就業 家口率이다.

〈表 3〉 貧困方程式의 獨立變數와 主成分間的 相關係數

獨立變數	第 1 主成分	第 2 主成分	第 3 主成分	第 4 主成分
NEH	0.75	0.43	0.13	0.48
HS	-0.72	0.08	0.68	-0.05
AWT	0.55	-0.79	0.17	0.20
AEY	0.93	0.03	-0.01	-0.13
CLR	0.92	0.10	0.14	-0.30
D	0.93	0.06	0.19	-0.13

結論的으로 貧困率의 地域間隔差를 설명하는 要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勞動生産性이고 다음으로 勞動時間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家口員數나 無就業 家口率은 별로 중요한 說明變數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1974년에만 해도 貧困家口는 全家口의 약 20% 정도로 貧困家口의 대부분이 勞動能力은

있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生産性과 賃金이 낮은 家口이었기 때문이다.

로 비교적 낮게 나온 이유는 各部門別 資本集約도가 1965~76年間に 변하지 않았다는 假定을 세운 데 起因한다고 생각한다.

〈表 4〉 貧困率 減少의 原因Ⅱ : 1965~76  
(단위 : %)

	貧困率의 減少	推定值/實際值
$\Delta NEH$	-0.47	1.8
$\Delta HS$	-2.58	9.9
$\Delta CLR$	-0.83	3.2
$\Delta AWT$	-8.92	34.2
$\Delta AEY$	-7.64	29.3
$\Delta D$	-3.38	12.9
推定된 總減少	-23.81	91.3
實際 總減少	-26.10	100.0

다음은 (2a)의 推定結果를 이용하여 1965~76年間の 貧困率의 時系列變化를 설명하여 보기로 한다. 無就業 家口率의 變化 ( $\Delta NEH$ )는 이에 해당하는 時系列資料를 얻을 수가 없어 14歲 이상 男子중 年老, 不具의 이유로 經濟活動을 하지 못하는 人口의 比率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産業構造의 資本集約度의 變化 ( $\Delta CLR$ )는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36個로 分類된 各部門의 資本—勞動比率이 1965~76年間 變化가 없다고 간주하고 이 期間中 産業構造의 變化에서 오는  $CLR$ 의 變化만을 推定하였다. 따라서 本稿에서 推定된  $\Delta CLR$ 은 資本集約度의 實際變化보다 低評價되었으리라 생각된다. 〈表 4〉에 나타나 있듯이 (2a)의 推定結果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 貧困率의 1965~76年間 減少는 23.8%이다. 이는 實際減少率 26.1%의 91%를 차지한다. 變數別로 보면 平均勤勞時間의 增加( $\Delta AWT$ )가 實際變化의 34%를 설명하고 다음으로는 平均教育年數의 增加( $\Delta AEY$ )가 29%를 설명하고 있다. 資本集約度의 變化( $\Delta CLR$ )가 설명하는 部門이 3%

## Ⅳ. 貧困家口의 特性

本章에서는 貧困家口의 特性을 좀더 구체적으로 分析해 봄으로써 貧困의 決定要因을 闡明해 보고자 한다.

### 1. 貧困家口의 分類

家口主 就業狀態에 따라 貧困家口를 다음의 넷으로 分類할 수 있다. (1)疾病, 高齡등의 이유로 就業不能家口 (2)就業能力은 있으나 失業인 家口 (3)就業은 하고 있으나 不完全就業(週當 36時間 미만 就業) 家口 (4)完全就業(週當 36時間 이상 就業) 家口.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資料를 이용하여 貧困家口를 위와 같이 分類한 결과는 〈表 5〉에 요약되어 있다.

〈表 5〉 貧困家口主 就業狀態別 分布  
(단위 : %)

	就業不能	失業	不完全就業 <sup>1)</sup>	完全就業 <sup>2)</sup>	合計
都市	21.6	13.6	17.9	47.3	100.0
農村	16.1	3.7	4.3	75.9	100.0
全國	17.2	8.2	10.3	64.3	100.0

註 : 1) 週當 36時間未滿 就業  
2) 週當 36時間以上 就業  
資料 :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就業不能家口가 都市地域에서 貧困家口의 22%, 農村地域에서는 16%를 차지한다. 다음

으로 就業能力은 있으나 失業인 家口는 都市에서 貧困家口의 14%, 農村에서는 4%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就業을 하지 못하는 家口를 核心貧困層(the hard-core poor)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은 經濟成長의 直接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가 점차 發展함에 따라 貧困層中 이들 無就業家口의 比率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週當 36時間 미만 일을 하는 不完全 就業家口는 都市에서 貧困家口의 18%, 農村에서는 4%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週當 36時間 以上 就業을 하면서도 貧困層에 속하는 家口가 都市에서 47%, 農村에서는 76%로 貧困家口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일을 하면서도 貧困한 家口를 就業貧困層(the working poor)이라 하는데 이들은 經濟成長의 直接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全般的 經濟發展과 所得增大는 就業貧困層의 相對的 減少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就業貧困層이 貧困家口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 經濟의 後進性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前節에서 貧困의 決定要因으로 無就業 家口率보다는 平均勤勞時間이나 勞動生産性의 尺度를 나타내는 變數들의 說明力이 높게 나타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政策樹立面에서도 就業을 하지 않는 核心貧困層(the hard-core poor)은 公的 扶助事業을 통한 政府의 直接的 補助가 필요하나, 1974年の 경우 貧困層의 대다수를 이루는 就業貧困層(the working poor)은 就業機會의 增大를 위한 政策과 低賃金 階層의 勞動生産性 增大를 위한 政策의 摸索이 필요하다.

## 2. 無就業 家口

勤勞所得은 少數의 高所得層을 제외한 대부분 家口의 主所得源이기 때문에 한 家口에 業者가 없다는 사실은 貧困의 主要原因이라 할 수 있다. <表 6>에 의하면 貧困率은 無就業家口의 경우 61.8%로 就業家口의 16.8%보다 훨씬 높다. 또한 全貧困家口의 15.6%가 無就業家口로 貧困家口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여기에서 無就業家口는 家口員중 아무도 就業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表 5>의 家口主가 無就業인 경우와는 區分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後者는 前者의 必要條件은 되나 充分條件은 되지 못한다.

<表 6> 業者有無別 分布

	(단위 : %)		
	貧困家口	非 貧 困 家 口	全 家 口
無就業家口	15.6 (61.8)	2.3 (38.2)	4.8 (100.0)
就業家口	84.4 (16.8)	97.7 (83.2)	95.2 (100.0)
合 計	100.0 (19.0)	100.0 (81.0)	100.0 (100.0)

資料 :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다음은 貧困家口中 無就業家口主의 無就業理由를 살펴 보기로 한다. 一時休職이나 失職은 都市地域에서 無就業·貧困家口主의 약 36%로 無就業의 主要原因이 되고 있다. 이 반면에 農村地域에서 失職은 無就業·貧困家口主의 15%로 相對的으로 낮은 比率를 차지하는 반면 年老의 경우는 45%로 都市에서의 24%보다 훨씬 높다. 대부분 女性家口主로 家事 때문에 就業을 못하는 경우는 無就業·貧困家口의 都市에서 20%, 農村에서 16%로 貧困家



口主가 無就業인 主要原因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無就業 원인으로서는 不具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都市에서는 無就業·貧困家口의 5%인 데 반해 農村에서는 11%로 相對的으로 높다.

〈表 7〉 貧困·無就業家口主의 無就業理由別分布 (단위: %)

	都 市	農 村	全 國
一時休職	0.2	0.0	0.2
失業	32.7	14.2	29.8
新規失業	2.9	0.8	2.6
家事	19.8	15.9	19.2
通學	7.7	0.3	6.5
年老	24.0	44.9	27.3
不具	5.0	11.4	6.0
不勞所得	2.2	5.9	2.8
其他	5.6	6.5	5.7
合計	100.0	100.0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家口主가 失職인 경우를 좀더 자세히 分析해 보기로 한다. 失職期間面에서 전체의 63%가 1年 미만(이 중 67%는 6個月 미만)으로 비교적 짧다. 失職의 이유로는 休·廢業(都市 18%, 農村 14%), 季節的 失職(都市 9%, 農村 14%), 報酬不足(都市 8%, 農村 7%), 轉職目的(都市 17%, 農村 9%) 등을 들 수 있다. 〈表 8〉에 나타난 失職家口主의 年齡別 分布를 보면 45歲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7%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失職家口主의 學力別 分布는 高卒이 29%, 大卒이 8%로 貧困家口의 全般的 教育水準보다 相對的으로 높다. [이와 같이 失職期間이 비교적 짧고 失職家口主의 年齡이 비교적 낮으며 教育水準이 높다는 사실

13) 이는 本稿에서 消費보다도 所得을 基準으로 貧困을 定義한 데 起因한다.

14) 徐相稔(1979) 參照.

은 失職으로 家口의 所得이 貧困線未滿에 이르는 家口의 尙當수는 就業機會의 絕對的 不足보다는 좀더 나은 職業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sup>13)</sup>.

〈表 8〉 貧困·失職家口主의 學歷 및 年齡階層別 分布 (단위: %)

	0~19歲	20~44歲	45~59歲	60歲以上	計
不就學	0.0	2.5	3.7	0.6	6.8
國民學校	0.5	20.3	8.2	0.9	29.9
中學校	0.5	20.3	5.2	0.2	26.2
高等學校	0.2	25.2	3.2	0.1	28.7
大學校	0.0	7.1	1.2	0.0	8.3
計	1.2	75.5	21.5	1.8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家口主가 年老하여 無就業인 경우 家口主의 學歷은 매우 낮다. 〈表 9〉에 의하면 不就學인 경우가 8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性別 分布에 있어서 男·女가 거의 같다는 것은 이들 家口의 尙當수가 獨身家口인데 起因한다. 家事 때문에 無就業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家口主가 女性이다. 〈表 10〉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教育水準은 대체로 낮으나 이는 貧困家口主의 平均教育水準<sup>14)</sup>과 비슷하다. 不具로 就業을 하지 못하는 家口主의 學歷 및 性別分布

〈表 9〉 貧困·年老家口主의 學歷 및 性別分布 (단위: %)

	男	女	計
不就學	34.1	46.9	81.0
國民學校	11.6	1.8	13.4
中學校	2.6	0.1	2.7
高等學校	1.8	0.4	2.2
大學校	0.7	0.0	0.7
計	50.8	49.2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는 <表 11>에 요약되어 있다. 教育水準은 貧困家口平均과 유사하나 家口主가 女性인 比率이 28%로 貧困家口平均(都市 22%, 農村 18%)보다 약간 높다.

<表 10> 貧困·家事從事家口主의 學歷 및 性別 分布

(단위: %)

	男	女	計
不 就 學	1.9	37.8	39.7
國 民 學 校	2.1	35.1	37.2
中 學 校	1.2	12.9	14.1
高 等 學 校	0.4	7.6	8.0
大 學 校	0.3	0.7	0.9
計	5.9	94.1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表 11> 貧困·不具家口主의 學歷 및 性別 分布

(단위: %)

	男	女	計
不 就 學	31.5	19.8	51.3
國 民 學 校	25.0	6.5	31.5
中 學 校	9.1	1.7	10.8
高 等 學 校	3.9	0.4	4.3
大 學 校	2.2	0.0	2.2
計	71.6	28.4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 3. 就業貧困層

貧困家口의 95%는 家口員中 就業者가 있으

며 貧困家口의 75%는 家口主가 직접 就業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就業貧困層을 農家와 非農家로 나누고 非農家를 不完全 就業家口(週當 36時間未滿 就業)와 完全 就業家口(週當 36時間以上 就業)로 나누어 分析하기로 한다. 就業貧困層의 69%가 非農家이고 이 중 약 67%는 週當 36時間 以上 就業을 하고 있다.

<表 12>에 의하면 農家의 경우 就業·貧困 家口主의 86%가 不就學 또는 國民學校 卒業者로 教育程度는 매우 낮다. 이는 대체로 農村地域人口의 教育程度가 낮고 貧困人口의 教育程度는 全人口의 平均教育水準에 훨씬 미달하는 데 起因한다. 또한 就業·貧困農家의 96%가 1.0町步 미만의 耕作地를 耕作하는 零細農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教育水準이 낮음과 耕作地의 狹小는 農家貧困의 主要決定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非農家 就業·貧困家口主의 教育程度와 就業從事上 地位別 分布를 36時間미만 就業者(表 13)와 36時間이상 就業者(表 14)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國民學校 미만 教育을 받은 家口主의 比率은 前者가 72%, 後者는 69%로 教育程度는 兩者 모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家口主의 就業從事上 地位面에서 36時間 미만 就業者의 13%가 零細自營

<表 12> 就業·貧困家口의 家口主 教育程度 및 耕作地 規模別 分布

(단위: %)

	0.5정보 미만	0.5~1.0 정 보	1.0~1.5 정 보	1.5~2.0 정 보	2.0 정보 이상	計
不 就 學	15.8	22.2	0.6	0.3	0.1	38.9
國 民 學 校	17.9	27.5	1.4	0.6	0.1	47.4
中 學 校	3.8	4.5	0.2	0.2	0.0	8.7
高 等 學 校	2.2	2.1	0.2	0.1	0.1	4.6
大 學 校	0.2	0.2	0.0	0.0	0.0	0.5
計	39.8	56.4	2.4	1.1	0.2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表 13〉 36時間 미만 就業・貧困非農家の 家口主 教育程度 및 從事上 地位別 分布

(단위: %)

	雇傭主	零細自營主	無給家族從事者	常用雇傭者	臨時雇傭者	日傭雇傭者	未詳 <sup>1)</sup>	計
不就學	0.0	3.7	0.1	0.2	0.5	7.4	20.2	32.2
國國學校	0.2	5.3	0.0	0.5	1.3	10.7	21.7	39.8
中學校	0.1	2.1	0.1	0.5	0.6	3.5	8.5	15.2
高等學校	0.0	1.4	0.0	0.2	0.3	1.4	6.9	10.3
大學校	0.0	0.3	0.0	0.1	0.0	0.1	2.0	2.6
計	0.4	12.7	0.3	1.5	2.7	23.1	59.3	100.0

註: 1) 無應答者로 대부분이 從事上 地位를 分類할 수 없을 정도로 就業狀態가 不規則인 것으로 생각됨.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表 14〉 36時間 以上 就業・貧困非農家の 家口主 教育程度 및 從事上의 地位別 分布

(단위: %)

	雇傭主	零細自營主	無給家族從事者	常用雇傭者	臨時雇傭者	日傭雇傭者	計
不就學	0.0	6.9	0.1	1.5	1.6	9.7	19.8
國民學校	0.3	12.6	0.2	8.5	6.6	20.8	49.0
中學校	0.3	4.8	0.0	4.2	3.2	6.1	18.6
高等學校	0.2	3.2	0.1	3.5	1.6	2.2	10.8
大學校	0.1	0.6	0.0	0.7	0.1	0.1	1.7
計	1.0	28.2	0.3	18.5	13.1	38.9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業主, 23%가 日傭雇傭者, 59%는 未詳으로 거의 대부분이 教育和 技術程度가 낮은 職種에 從事하고 있다(家口主가 雇傭主이거나 常用雇傭者인 경우는 전체의 3%에 불과함). 36時間 이상 就業者의 경우 家口主가 雇傭主이거나 常用雇傭者인 경우는 전체의 약 20%로 역시 상당수가 教育 및 技術程度가 未備한 상태로 勞動生産性이 低調함은 就業・非農家 貧困의 主要決定要因으로 指摘될 수 있다.

以上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貧困線을 약간 增減하는 데 따른 貧困人口推計의 變動도 크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 계속적인 經濟成長으로 인한 全般的 所得의 增大는 貧困人口의 상당한 減少를 가져올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는 貧困人口中 대다수가 실제로 就業을 하고 있는 데에 起因한다. 家口의 所得이 貧困線의 50~80%인 경우는 全貧困家口의 23%이고 極貧家口(家口所得이 貧困

#### 4. 貧困程度別 分布

貧困家口間에는 貧困程度面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貧困程度別 分布를 살펴 보기로 한다. 〈表 15〉에 의하면 全貧困家口의 약 60%가 家口所得이 貧困線의 80%

〈表 15〉 貧困程度・就業形態別 分布

(단위: %)

	無就業	就業	全貧困家口
貧困線의 50% 未滿	27.8	13.5	18.2
貧困線의 50~80%	23.9	22.4	22.9
貧困線의 80~100%	48.3	64.1	58.9
計	100.0	100.0	100.0

資料: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

線의 50% 미만)는 18%로 비교적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V. 要約 및 結論

1974年 特別雇傭統計調査는 標本家口數도 많고 調査項目도 多樣하여 이 調査에서 低評價된 家口所得단 上向調整하면 貧困의 決定要因分析에 유익한 統計資料가 될 수 있다.

各行政區域間 貧困率의 차이를 回歸分析해 본 결과 平均家口所得이 가장 중요한 說明變數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各行政區域內의 所得分布를 나타내는 「지니」係數도 有意한 變數로 나타났지만 平均家口所得만큼 說明力이 높지는 못하다. 이는 地域別 貧困率은 各地域間의 平均家口所得으로 대충 間接推定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크로스 섹션」分析結果로 貧困率의 時系列變化를 分析하여 보았다. 1965~76年間 家口所得의 全般的 增加가 이 期間中 貧困率 減少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1960年代 韓國과 같은 開發途上國에서는 雇傭機會의 增大와 勞動生産性의 向上을 위한 政策의 摸索이 貧困打開에 가장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回歸分析의 說明變數를 좀더 구체적으로 糾明해 본 結果에 의하면 生産性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는 勞動時間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變數가 앞에서 糾明된 平均家口所得의 決定要因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家口員構成을 나타내는 變數의 說明力이 낮게 나타난 것은 1974年の 경우 貧困家口主의

대부분이 就業을 하고 있는 데 起因한다.

이러한 사실은 貧困家口의 特性分析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1974年の 경우 家口主가 勞動能力喪失 또는 失業으로 就業을 하지 못하는 家口는 全貧困家口의 25% 程度이고 家口員中 아무도 就業을 하지 않은 家口는 全貧困家口의 5%에 불과하다. 이는 貧困打開政策으로서 勞動性向上을 통한 低賃金の 除去가 重要함을 示唆한다 하겠다.

就業·貧困農家의 대부분은 耕作地 1町步 미만의 零細農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所得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農村地域에서 農業 以外 就業機會의 增加를 推進하여 農外所得의 大幅的 增大 또는 貧困線 以上の 所得이 보장되는 他産業으로의 轉向이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就業·貧困 非農家의 대부분은 職業이 安定的이지 못한 日傭勞務者 또는 零細自營業主이다. 이들의 所得增大를 위해서는 前者의 경우 政府 職業訓練과 職業安定施策이 좀더 활발히 推進되어야 하겠으며 後者를 위해서는 生業資金을 融資해 줌으로써 이들의 自營業의 零細性を 탈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核心貧困層(the hard-core poor)을 이루는 無就業·貧困 家口는 不具, 年老 또는 家口主가 家事에 從事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經濟發展의 直接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階層이기 때문에 이들의 生計는 公的扶助事業으로 保護해 주어야 한다. 失職으로 就業을 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失職期間이 비교적 짧고 教育水準도 별로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 經濟가 勞動集約的 産業의 급격한 發展으로 成長하였기 때문에 就業機會의 絶對的 부족은 다른 開發途上國에서와 같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失業의 形態가 점차 先進國에서와 같이 景氣變動, 季節 등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先進國의 失業保險과 같은 對策의 樹立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貧困程度面에서 貧困層의 相當수가 所得이 貧困線을 크게 下廻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매

우 다행한 일이다. 이는 앞으로 經濟發展에 따라 家口所得이 全般的으로 向上되면 貧困人口도 대폭 減少하여 公的扶助事業, 就勞事業 등의 對象人口도 차츰 減少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하겠다.

### ▷ 參 考 文 獻 ◁

徐相穆, 「貧困人口의 推計와 屬性分析」,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2號, 1979, 여름호.  
朱鶴中, 「階層別 所得分布의 推計와 變動要因」, 『韓國開發研究』, 第1卷 第1號, 1979, 創刊號.  
Bertrand, Renaud, "Income Size-Distribution by Province and City in Korea," World

Bank (unpublished), March 1978.  
Thurow, Lester, C. "The Causes of Pover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1, February 1967.  
\_\_\_\_\_, *Poverty and Distrimination*, Brookings Institution, 1969.